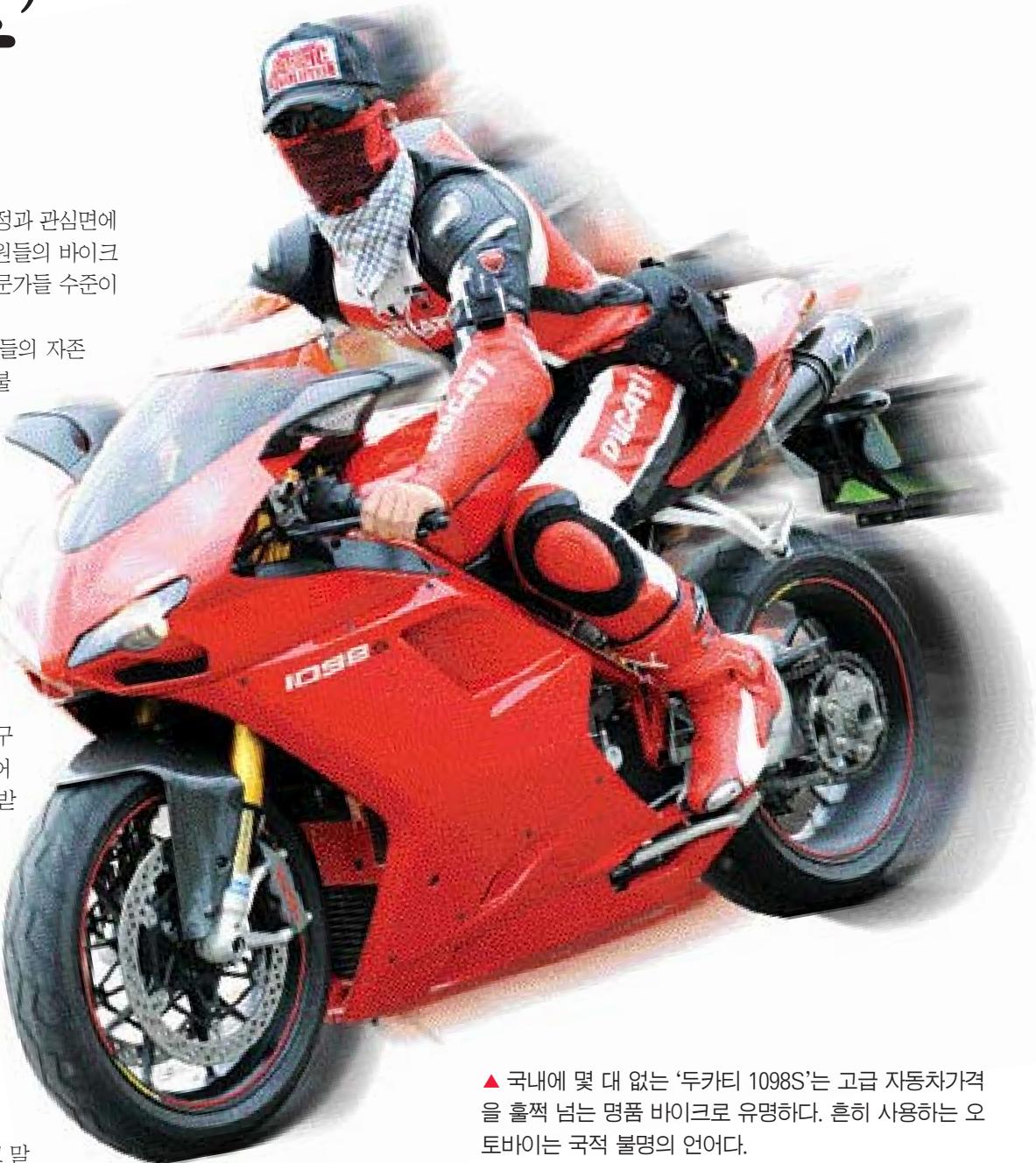


■ '바이크 닷컴'



▲ 우리 고장의 수려한 자연을 벗삼아 자유를 향한 질주를 펼치는 '바이크 닷컴'의 회원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올바른 이륜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이들의 목표다.

자유 사랑... '무한 질주'



길! 바람! 그리고 나!

바이크 부릉~ 부릉 부릉! 기다란 소음을 꼬리에 달고 도로위를 질주하는 빨갛고, 파랗고, 노란 형형색색의 바이크들이 자유를 향해 질주한다.

갇혀있는 것이 싫다. 제한 받는 것도 싫다. 도심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신과의 오롯한 대화를 원하는 도로 위의 자유인들 '라이더'. 이들의 꿈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바이크를 타고 끝없는 질주를 하는 것이다.

속도를 제한하지 않고 달리는 것만이 라이더들의 꿈이 아니다. 거칠없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달리는 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바이크 철학이다.

광주·전남에도 바람과 자유를 사랑하며 달리는 라이더 모임이 몇 군데 있다. 바이크의 종류에 따라 서로의 모임을 갖기도 한다.

'바이크 닷컴' 동호인들은 바이크의 종류나 배기량에 따라 구별을 두지 않는다. 500cc~1,300cc까지 바이크를 좋아하는 이들은 모두가 회원이 될 수 있다.

'바이크 닷컴'의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는 동호인은 무려 2천480명.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정도고, 실제 투어를 하는 우수 회원 라이더들은 40여명.

이들도 매번 날짜를 정해놓고 투어를 하지 않는다. 직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주중과 주말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투어일 운영자가 카페를 통해 날짜를 공고해 운영자를 주축으로 모임을 갖는다.

주로 이들의 만남의 장소는 전대후문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 센터 앞. 이곳에서 모임을 갖고 그날의 투어 장소를 정해 신나는 질주를 즐긴다.

백양사 코스와 완도, 진도 등 해지기 전 돌아올 수 있는 코스가 인기다.

투어를 떠나기 전 이들은 안전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일반인들이 보는 라이더들에게 대한 좋지 않은 시

일반 스쿠터서 명품 '두카티'까지

광주지역 라이더 2,500명 활동

바람 가르며 '일상 탈출'

안전 최우선... "폭주족 아니다"

선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안전과 주행 시 속도, 수신호 등에 대한 숙지를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서정연한 투어를 하기 위해서다.

오병학(35) 바이크 닷컴 운영자는 "바이크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2열 갈자자(之) 대열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은 없다"며 "자동차 운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라이더들은 헬멧, 가죽으로 만든 전용 의상, 강간, 부츠 등을 착용해 안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쓴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걸 갈자자 대열을 유지하며 투어를 떠난다. 이처럼 엉갈린 대형을 취하는 것은 교통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혹시 선행 바이크가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김수철(31) 운영자는 "사회에서 라이더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데 폭주족과 라이더들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라이더들은 대부분 125CC 이상의 바이크를 몰기 때문에 2종소형 면허증을 소지한 허가받은 운전자들이고, 125CC 이하는 자동차 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

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바이크에 대한 애정과 관심면에서 비교될 수 없다는 것. 더욱이 이들 회원들의 바이크 경력은 대부분 10년이상을 훌쩍 넘긴 전문가들 수준이다.

'바이크 닷컴' 회원들은 이처럼 라이더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사회의 끊지 않은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폭주족들에 대한 교육과 올바른 주행에 대한 계몽도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크들은 소위 폭주족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준석(31) 회원이 보유한 '두카티 1098S'는 국내에 몇대 되지 않는 명품 기종으로 4천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고, 오병학씨의 애마 두카티도 2천200만원대다.

따라서 이들의 바이크에 대한 사랑은 지극정성이다. 오현수(37) 회원이 북구 오지동에서 바이크 센터를 경영하고 있어 회원들의 애마는 모두 이곳에서 정비를 받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염혜빈(여·22), 설윤미(여·22), 김희진(여·19) 성희원들은 아직 스쿠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조만간 경력을 쌓으면 좀 더 큰 바이크를 구입할 꿈을 꾸고 있다.

나문식(31) 회원은 "도심을 떠나 바람을 운물으로 느끼면서 주행하는 느낌은 경험해보지 않은 이들은 알 수 없다"며 "일상의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나를 찾는데 이보다 더 좋은 레포츠는 없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 위치기자 jrw@kwangju.co.kr

▲ 국내에 몇 대 없는 '두카티 1098S'는 고급 자동차가격을 훌쩍 넘는 명품 바이크로 유명하다. 흔히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국적 불명의 언어다.

movies <small>여기 영화 즐기는 시간 보내세요</small>		Happy Time		영화안내					
<small>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관 www.megabox.co.kr</small>		<small>영화보기 더 재밌는 영화관 Happy Time</small>		<small>영화시청 영화시청 www.joycbo.com 1588-7941</small>		<small>생각하는 영화신학 www.cinusa.co.kr 1544-0070</small>			
미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구. 텐단약국사거리 ☎ 예매 1544-0600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문외)		복지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호른 (전체) / 추격자 (18세) 2관 비스티보이즈 (18세) / 기루지기 (18세) 3관 포비든킹덤 (12세) 4관 스피드레이서 (12세) 5관 아이언맨 (12세) 6관 나니아연대기/인디아나존스 (12세) 7관 나니아연대기/인디아나존스 (12세) 8관 스피드레이서/달리리종부전 (12세) 9관 갯벌 (12세)		1관 인디아나존스 (12세) 2관 페넬로피 (12세) 3관 인디아나존스 (12세) 4관 인디아나존스 (12세) 5관 날리리종부전 (12세) 6관 스피드레이서 (12세) 7관 나니아연대기 (전체) 8관 갯벌 (12세) 9관 나니아연대기 (전체) 10관 아이언맨 (12세)		1관 인디아연대기 (전체) 2관 갯벌 (12세) 3관 인디아나존스 (12세) 4관 날리리종부전 (12세) / 스피드레이서 (12세) 5관 페넬로피 (12세) / 테이큰 (18세) 6관 아이언맨 (12세) 7관 인디아나존스4 (12세)		1관 흐른 (전체) 2관 인디아나 존스 (전체) 3관 스트리트 킹 (18세) 4관 포비든 킹덤 (12세) 5관 인디아나존스 (전체) 6관 테이큰 (18세) 7관 갯벌 (12세) 8관 스피드레이서 (12세) 9관 아이언 맨 (12세) 10관 나니아연대기 (전체)			
<small>*영화 티켓 이수하면 경품과 혜택이 쏟아진다! (~2008.5.31)</small> <small>• 미프유 주차장 이용 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 한정) : 2시간 30분 초과 시 정상요금 부과</small>		<small>www.entercinema.co.kr</small> <small>• 네고판관 혹은 흑백 주차장 300대 • 글트 심야상영</small> <small>•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small>		<small>1588-7941</small> <small>상무원길 남법 1층 02-511-1000</small>		<small>1544-0070</small> <small>• 매일 심야 상영합니다</small> <small>• 무료주차 3시간</small> <small>• 이동통신사 할인 혜택</small> <small>• 배스노하우저우(온라인-오프라인)</small>		<small>1588-8120</small> <small>• 500대 넓은 주차장(841간부로) • 365 매일 심야 24시간 운영</small> <small>• 이동 통신사 & OK 카페 혜택</small> <small>• 하미 수영장 268-5757</small> <small>• 하미 블링킹 262-0925</small> <small>• 하미 골프장 251-5060</small> <small>• 영빈관 예식장 261-2000</small>	